

# ‘명품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시사점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최근 강남 소재 수선집과 명품업체 L사 사이의 명품 가방 리폼(업사이클링 등 특정 제품을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것)을 둘러싼 상표권 침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큰 화제가 됐다. 대법원이 “명품 가방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방을 리폼한 경우에는 리폼 과정에서 문체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였다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서 1심 및 2심은 모두 리폼업자(강남 소재 수선집)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기에 해당 대법원 판결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명품업체 L사가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해체 등의 방식으로 리폼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한 강남 소재 수선집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먼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범위와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의 제반 규정, 비교법적 분석(유럽연합 상표규정, 미국 연방

상표법) 등을 통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상거래에 제공돼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돼 있음을 지적했다. 어떤 물품에 관한 상표 표시행위 등이 그 물품을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상표권 소진 원칙 등에 기초해 상품 소유자가 리폼 전·후에 제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제품을 리폼된 제품으로 변형·가공하는 일련의 리폼 행위 역시 소유권 행사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리폼 과정에서 제3자의 조력을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리폼을 대행하게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모습이고, 이를 소유자가 스스로 리폼 행위를 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상품의 소유자가 직접 리폼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리폼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된 제품을 소유자에

게 반환한 경우에도 이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리폼 행위를 한 것처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돼 이루어진 상표 표시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따라 명품 제품의 리폼 등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변형·가공과 관련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판시한 ‘개인적 사용’ 부분에 주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등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일정한 리폼 스타일을 브랜드화 해서 제공하는 등).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예외사유(특별한 사정)와 관련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개별 사건들에서 계속 그 해석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 소액대출 시장의 두 얼굴



기지 수집 안 재 선 (금융부)

“고작 몇십만원만 빌리기 위해 이 사람이 차를 담보 잡히고 내는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9%대예요.”

한 업계 관계자에게서 들은 말이다. 누군가는 당장 30만원이 없어 이를 빌리기 위해 차를 담보로 내놓는다. 그들이 내는 금리는 19%대다.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은 ‘대출 중에서도 최후의 수단에 가까운 상품’이다. 집도, 신용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차만 팔기면 다행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다. 지난해 법정최고금리에 가까운 대부업을 중심으로, 저신용자 대출 공급액만 3000억원이 늘었다. 고금리 업권의 대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출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아했다. 개인투자자가 늘어나면서 휴대폰 터치 몇 번으로 “몇십만원 빌었다”, “몇십만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말이 쉽게 오가는 시대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몇십만원이 없어 차량을 담보로 잡히고, 높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현실이 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고금리 소액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겉으로 이어진 듯하지만, 실상은 단절된 두 세계다. 차담대를 시

행하는 취약차주 중에서 정말로 공공금을 낼 돈조차, 생활자금조차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가 49만가구를 넘어섰다. 양극화다. 금융 자산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두 세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최근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경제주체 간 이질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극화의 폐단이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다. 단순 지원, 단순 금리 깎아주기 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더 근본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될 때다.

/wojs4187@metroseoul.co.kr

###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30일 (음 2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책임을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60년생 금전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72년생 어려운 일이 닥쳐도 슬기롭게 해결합니다. 84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 소**  49년생 고집으로 남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61년생 귀인이 서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73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85년생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 호랑이**  50년생 지금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62년생 성공이 결정되어 있으니 열심히 추진하세요. 74년생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성공합니다. 86년생 여행을 떠나면 좋습니다.
- 토끼**  51년생 주위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63년생 위험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75년생 가족들에게 안부전화를 하세요. 87년생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은 삼가세요.
- 용**  52년생 대 성과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64년생 쌓아놓은 업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76년생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88년생 본인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 뱀**  53년생 본업에 충실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65년생 혼란스러웠던 것이 정리 됩니다. 77년생 사업을 하면 큰 돈이 들어옵니다. 89년생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세요.
- 말**  54년생 다가올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66년생 계약을 뒤로 미루세요. 78년생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90년생 주변에 당신의 재물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양**  55년생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세요. 67년생 조상들의 지해를 잘 되새겨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79년생 모든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91년생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 원숭이**  56년생 발전과 명예는 현재로서는 환상일 뿐입니다. 68년생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80년생 오늘은 뜻밖의 황재라도 할 것 같은 날입니다. 92년생 학업에 충실하세요.
- 닭**  57년생 하루 일과가 무난하고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69년생 뜻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돈을 만지게 됩니다. 81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기면 길하지 못합니다. 93년생 작은 행운이 기쁘게 합니다.
- 개**  58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70년생 자중하는 하루를 보내세요. 82년생 뜻밖의 행운에 흐뭇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94년생 애인과 데이트 하기도 좋은 날입니다.
- 돼지**  59년생 손실이 발생하니 신중해야 합니다. 71년생 어떤 일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95년생 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십시오 현명합니다.



## 김상회의四季 정초 21일 기도회향

음력으로 삼월을 바라보고 있다.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초 산림기 도라 하여 3·7일, 즉 21일 기도를 많이 한다. 선조들은 삼월 21일 기도를 중시여기는 데, 이는 흡수를 상서롭게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짧아도 삼 일 기도를 기도의 최소 단위로 보기도 하지만, 신비와 우주의 리듬을 나타내는 숫자로 여겨지는 7을 곱하여 3·7일, 즉 21일 기도는 일 년을 평안하게 보내려는 기원을 담아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각별한 기간이다. 대부분의 정초에 백일기도를 하지만 보통은 짧게는 7일, 그다음은 21일 기도가 일반적이다. 백일기도를 하더라도 21일 정도 지나면 기도 가피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빠르게 가피를 받는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는 항상 정초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신도들의 사정에 따라 3일, 7일 또는 21일에 걸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월 초사흘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각자의 발원문을 월광사에 올리고 처음 입재 때나 회향 때만 참석해도 가하다.

시간이 어려우면 각자 집에서 기도해도 좋으며, 다만 되도록 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곤 한다. 잘 살펴보면 닭도 병아리가 부화하려던 알을 낳아서 품는 기간이 21일이다. 어미 닭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올곧게 알을 품고 기다린다. 그렇게 스무하루가 지나면 드디어 병아리가 알을 깨어 나오려 움직이고 어미 닭은 부리로 알을 쪼아 병아리는 세상에 나온다. 이렇듯 정성을 담아 마음을 기울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현실에서 실현된다. 누군가는 우연이지 설마 그럴까 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여우 같은 의심이 깊으면 세상이 기적은 피해 가는 법이다. 21일이 괜히 나온 기간이 아니다. 의심 없이 하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신심이 있다면 통하는 가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4		1		8	3	
5		3					
		4		9	5		
2	4		6	1			
			2	7		1	6
	8	7		2			
			8			7	
4	3	5		8	9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이드의 알파벳을 증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6	8	9	2	9	2	8	7
9	2	7	8	6	1	9		
7	9	2	6	1	2	8	9	
9	1	7	2	8	9	6	8	
8	2	9	6	7	6	1	9	2
6	6	2	9	1	9	8	7	2
2	9	6	8	9	7	8	2	1
2	7	1	6	8	2	9	9	8
8	8	9	1	9	2	7	2	6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8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